



# Check-up

하건형 수석연구원

☎ (02) 3772-1946

✉ keonhyeong.ha@shinhan.com

김찬희 책임연구원

☎ (02) 3772-1537

✉ chee@shinhan.com

임환열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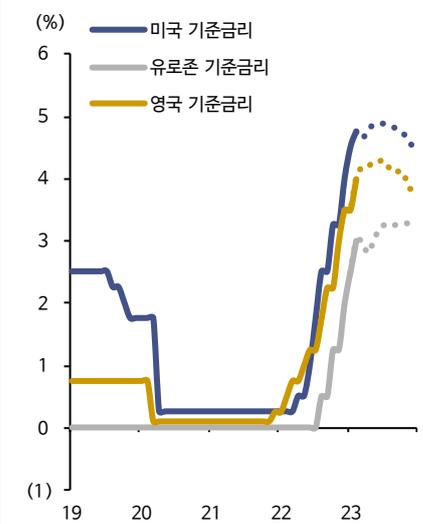
☎ (02) 3772-2301

✉ hwanyeol.lim@shinhan.com

## ✓ Review: 파월의 입이 만든 완화 기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물가 안정

- ◆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기조 유지. 다만 국가별로 정책 논조는 차별화. 연준은 2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에 추가 긴축 속도 조절. 성명서 문구에서 인플레이션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추가됐으나 물가 목표 달성 위해 지속적 인상을 기대한다는 문구 유지돼 금리 인상 중단의 명시적 시사 부재
- ◆ 성명서 문구에서 꺾었던 통화완화 기대 심리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으로 회복. 파월 의장은 1) 디스인플레이션 진입 속 2)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따른 물가 상방 위협보다 임금 안정에 초점두고 있음을 시사. 3)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으며 과도하게 긴축할 동기나 욕구 없다고 언급
- ◆ ECB와 BOE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2.50%→3.00%, 3.50%→4.00%로 50bp씩 인상. ECB는 3월에도 추가 50bp 인상 예고, BOE는 성명서 문구에서 "필요 시 금리 인상 지속" 없애 금리 인상 후반 진입 인정
- ◆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가 견조한 구간에서 경기 연속률 기대 부상. 다만 미국 12월 구인수가 1,101만건으로 전월대비 증가했으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최저 수준에 위치해 노동 수급 완화 제한. 긴축 경계 완화 시 중국 리오프닝 수요 유입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 재차 부상할 가능성 경계 필요

### 미국과 유로존, 영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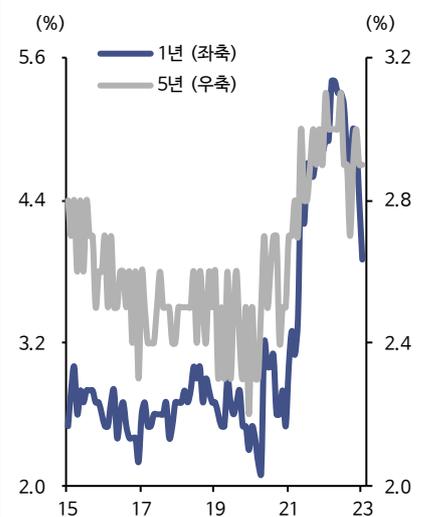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신한투자증권

## ✓ Preview: 파월 의장 비롯한 주요 연준위원 발언, 기대 인플레이 등 주목

- ◆ 연준 성명서 문구만을 놓고 보면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에 무게. 다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통화 완화 기대를 꺾지 못한 만큼 금주 예정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주요 연준위원 발언에서 이에 대한 기대를 제한하는 조치가 나타날 가능성 경계. 7일 파월 의장 및 바 부의장 연설, 8일과 10일 윌러 이사 연설
- ◆ 주요 경제지표로 뉴욕연과 미시간 소비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예정.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및 최근 물가 흐름에 좌우하는 만큼 완만한 하락 예상. 정책 당국자가 주목하는 10일 미시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와 1년 간 시차를 고려 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판단
- ◆ 기타 정책 이벤트로는 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예정. 바이든은 신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걸림돌(채무한도 협상) 등이 해소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
- ◆ 8~11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에서 미국 주도 반중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추가 논의. 미국이 중국에서 인도로 공급망 중심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 및 기업의 유불리가 지속적으로 거론될 전망

### 미국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Weekly Calendar

### Review

날짜	지역	항목	기간	발표치	예상치	이전치
1월 30일	독일	GDP 속보치 (QoQ)	4Q	(0.2%)	0.0%	0.5%
		GDP 속보치 (YoY)	4Q	0.5%	0.8%	1.3%
1월 31일	한국	산업생산 (MoM)	12월	(2.9%)	(0.2%)	0.6%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2월	98.5	-	99.0
	유로존	GDP 속보치 (QoQ)	4Q	0.1%	(0.1%)	0.3%
		GDP 수정치 (YoY)	4Q	1.9%	1.7%	2.3%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1월	50.1	50.1	47.0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	1월	54.4	52.0	41.6
	미국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MoM)	11월	(0.5%)	(0.7%)	(0.5%)
2월 1일	한국	수출 (YoY)	1월	(16.6%)	(11.1%)	(9.6%)
		수입 (YoY)	1월	(2.6%)	(2.6%)	(2.5%)
		무역수지	1월	(\$12,690M)	(\$9,273M)	(\$4,692M)
	유로존	실업률 (SA)	12월	6.6%	6.5%	6.6%
		소비자물가 속보치 (YoY)	1월	8.5%	8.9%	9.2%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1월	49.2	49.8	49.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월	107.1	109.0	109.0
2월 2일	한국	소비자물가 (MoM)	1월	0.8%	0.7%	0.2%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 (정책금리)	2월	4.00%	4.00%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예금금리)	2월	2.50%	2.50%	2.00%
	미국	건설지출 (MoM)	12월	(0.4%)	0.0%	0.5%
		ISM 제조업지수	1월	47.4	48.0	48.4
		FOMC 통화정책회의 (정책금리)	2월	4.75%~5.00%	4.75%~5.00%	4.50%~4.75%
2월 3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월	-	51.0	48.0
		미국	제조업주문 (MoM)	12월	1.8%	2.3%
	미국	비농기취업자수 (MoM)	1월	-	189K	223K
		실업률 (SA)	1월	-	3.6%	3.5%
2월 4일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	1월	-	50.5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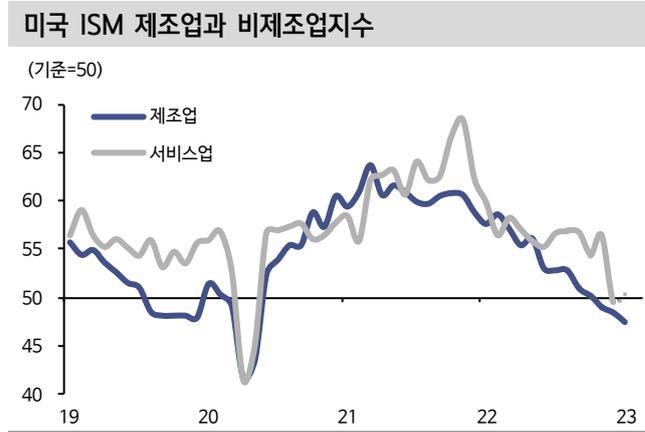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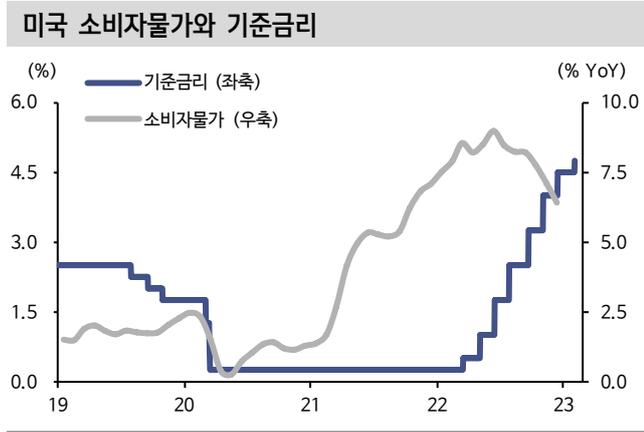
### Preview

날짜	지역	항목	기간	예상치	이전치
2월 6일	유로존	소매판매 (MoM)	12월	-	0.8%
2월 7일	미국	무역수지	12월	(\$68.5B)	(\$61.5B)
2월 8일	한국	경상수지	12월	-	(\$621.7M)
2월 9일	중국	M2 유동성 (YoY)	1월	11.6%	11.8%
		신규위안화대출	1월	4,000B	1,400B
2월 10일	영국	GDP 속보치 (QoQ)	4Q	0.0%	(0.3%)
		GDP 속보치 (YoY)	4Q	0.4%	1.9%
	중국	소비자물가 (YoY)	1월	2.3%	1.8%
		생산자물가 (YoY)	1월	(0.4%)	(0.7%)
2월 11일	미국	미시건 소비심리 속보치	2월	65.0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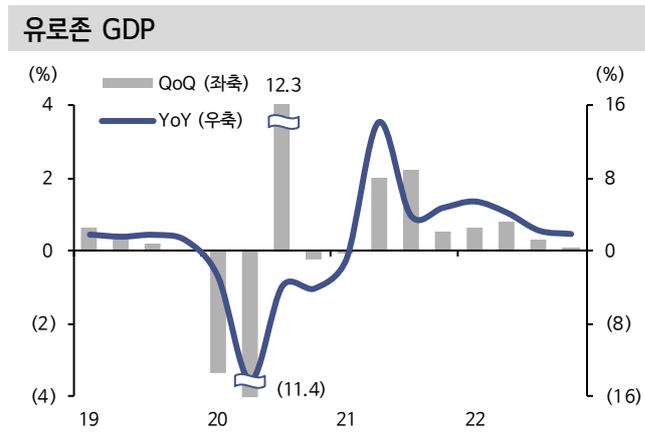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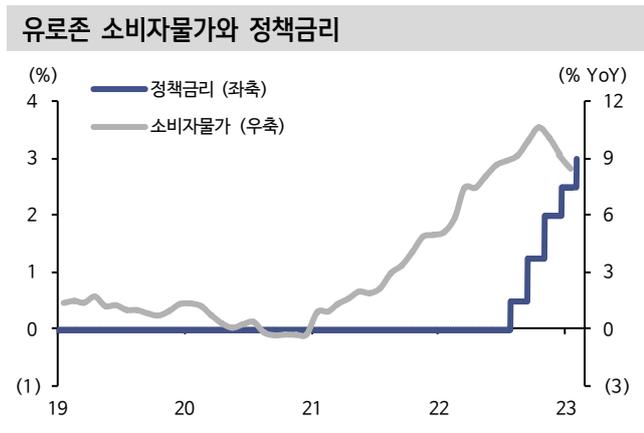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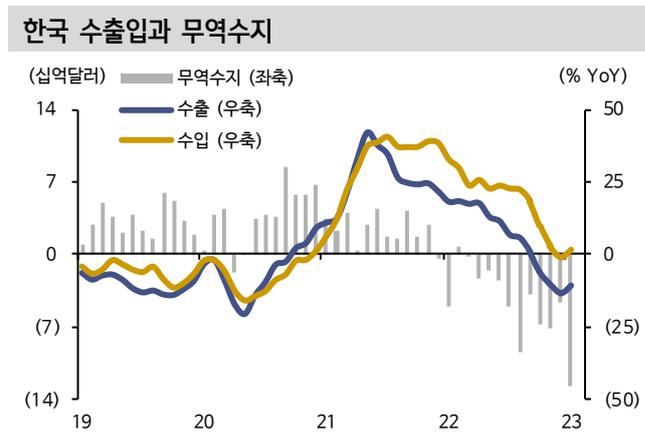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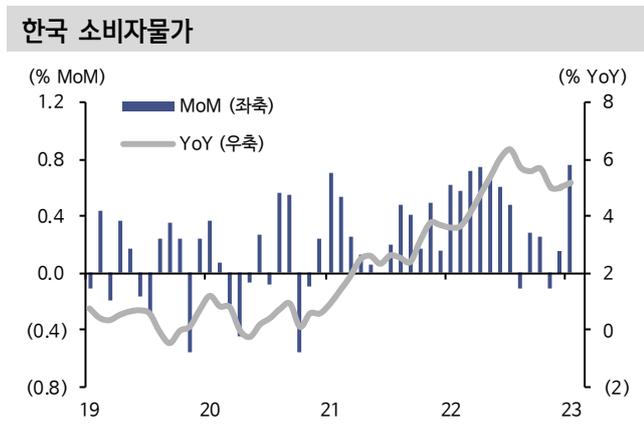
✓ 2월 FOMC에서 물가 오름세 둔화 및 성장 하방 위험 고려해 금리 25bp 인상 결정. ISM 제조업지수는 위축 국면 지속



✓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 결정, 3월 추가 50bp 인상 예고. 유로존 4분기 GDP는 소폭 둔화



✓ 한국 1월 수출은 대내외 수요 부진에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1월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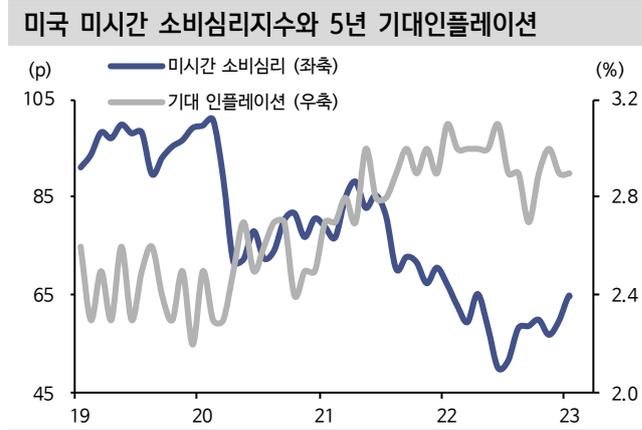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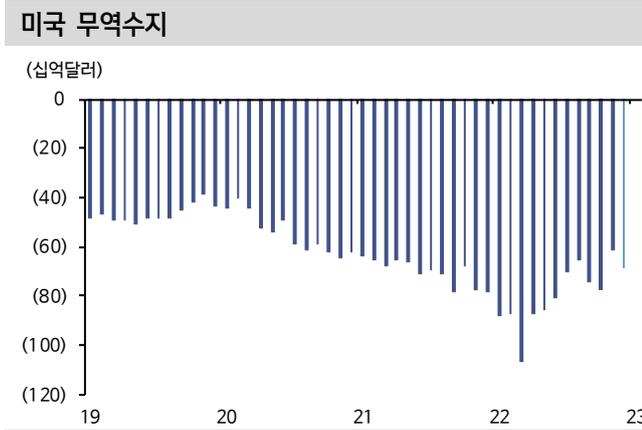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CEIC,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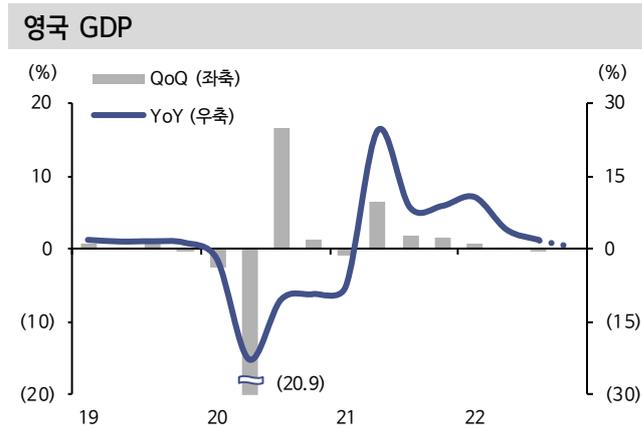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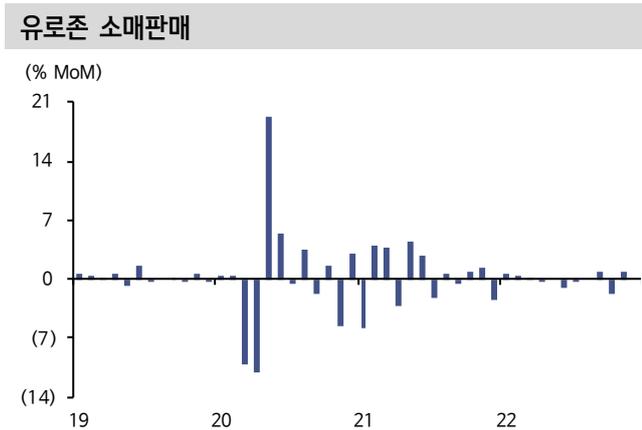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CEIC, 신한투자증권

#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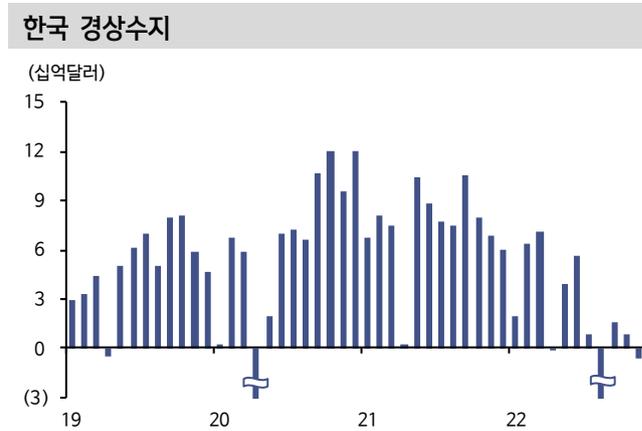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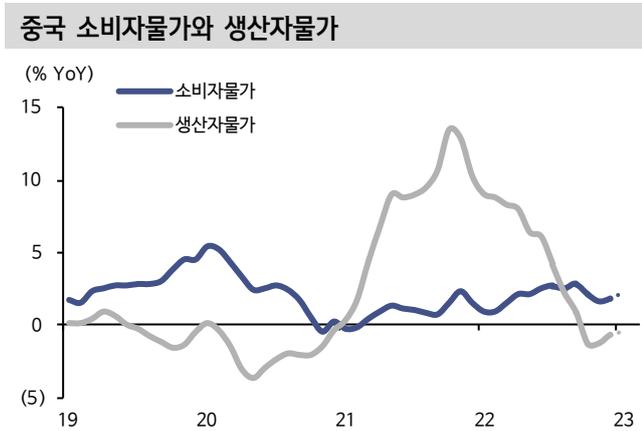
✓ 미국 무역적자는 대외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로 확대 예상. 미시간 소비심리는 소폭 개선 예상



✓ 유로존 12월 소매판매는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에 양호할 전망. 영국 4분기 GDP는 건축 효과로 완만한 둔화 전망



✓ 중국 1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리오픈링 효과 반영돼 오름폭 확대 예상. 한국 12월 경상수지 적자 지속 경계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CEIC, 신한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CEIC, 신한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하건형, 김찬희, 임환열).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